

목양칼럼

주는 평화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은 원래 한 나라였습니다.
 나라가 둘로 깨어지고 오랫동안 서로에 대한 반목과 갈등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들에겐 평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평화를 만들 수 있는 분은 한 분이셨습니다.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겔 37:19)

그 평화를 위해서 왕이 둘이 되면 안 되었습니다.
 두 왕이 있는 곳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겔 37:22)

진정한 평화는 무엇보다 먼저 각자 더러운 우상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겔 37:23)

그리고 그들만의 평화가 최종 목적으로서는 부족했습니다.
 그들만의 평화를 넘어 더 중요한 목표가 있어야 했습니다.
 서로 하나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평화의 궁극적 방향이어야 했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겔 37:26)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886-4040 中文 (347)965-0343 Fax (718)886-5555 http://www.kapcq.org

원로목사 장영춘	담임목사 김성국		
부목사 김도현/QPEM (347)450-7736	김재형 (347)761-7663	오인수 (267)205-1295	
전도목사 이신은 (646)220-8324	다민족선교사 송요한 (917)940-0596		
전도사 고부영/1교구 (917)423-5298	계화자/2교구 (646)641-8944	이양미/3교구 (516)717-8720	함미희/4교구 (917)359-2857
황혜옥/중국교포, 중국어부 (718)825-6969	천위지/중국어부 (347)965-0343	진기용/EEP (201)835-3166	
소유영/행정 (917)318-7030	전성호/청년선교부 (201)370-3455		
교육전도사 이명옥/영어부 (646)327-6438	강지영/유아부 (718)801-2339	이소영/유치부 (347)610-5399	평정은/유년부 (646)423-3583
차평화/중등부 (703)819-8785	최진식/ (646)887-7419	손요한/중국어부 (646)789-1118	
직인 정진규/관리 (646)651-7255	홍현숙/서무 (201)759-0820	Shen de Guia/QPEM (917)254-7455 오재혁 (646)662-9015	
찬양대 1부 / 임마누엘 찬양대	2부 / 호산나 찬양대	3부 / 시온 찬양대	4부 /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 / 최진식	지휘 / 최경희	지휘 / 소유영	지휘 / 강혜영
반주 / 임세현	반주 / 김정윤 이승은	반주 / 송소영	반주 / 최미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교회

- 머무는교회, 터하는교회, 배우는교회, 나누는교회

말씀으로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미주 한인 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원로목사 **장영춘**
 PASTOR EMERITUS, REV. YOUNGHOON CHANG

담임목사 **김성국**
 SENIOR PASTOR, REV. SEOUNG KOOK KIM

주후 2018년 4월 29일
 제 44-17호

주일예배 (1,3부)

1부 / 오전 8:30 김재형 목사
 2부 / 오전 10:30 김성국 목사
 3부 / 오후 12:15 김성국 목사
 4부 / 오후 2:00 오인수 목사

* 예배선언 CALL TO WORSHIP		사회자
* 참회와 경배 CONFESSION & ADORATION		다같이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 찬송 HYMN	67	다같이
헌신기도 PRAYER		1부 / 송동울 장로 3부 / 최원일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출애굽기 27: 1-21	사회자
찬양 CHOIR	우리는 주를 믿는자 보혈의 은혜	임마누엘 찬양대 시온 찬양대
말씀 SERMON	제단을 만들되	김성국 목사
헌금 및 찬송 OFFERING & HYMN	249	다같이
광고 ANNOUNCEMENT		사회자
* 찬송 HYMN	살아계신 주 / 1절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치유와 축복기도	사회자
* 표는 일어섬		

주일예배 (2,4부)

2부 / 오전 10:30 김성국 목사
4부 / 오후 2:00 오인수 목사

예배부름 CALL TO WORSHIP		사회자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영광송 ANTHEM		찬양대
*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다같이
헌신기도 PRAYER	2부 / 차상남 장로 4부 / 함용식 장로	
광고 및 환영 ANNOUNCEMENT		사회자
헌금 OFFERING & HYMN	249	다같이
성경봉독 SCRIPTURE	2부/ 출애굽기 27: 1-21 4부/ 고린도후서 6: 14-18	사회자
찬양 CHOIR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참 좋으신 주님	호산나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말씀 SERMON	2부 / 제단을 만들되 4부 / 21세기 크리스천: 불편한 관계	김성국 목사 오인수 목사
* 찬송 HYMN	주 여호와와는 광대하시도다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치유와 축복 기도	설교자

* 표는 일어섬

새가족 환영회

예수의 유일성

어린이 주일

5/6(주)

전교인 한마음 축제

Belmont Lake Park

5/28(월)

2018 전교인 여름 수련회

7/2(월) -7/4(수)

수요 기도 예배

모세 / 한나 선교회 헌신 예배

오후 8:00 (5/2/18)

사회:김용생 장로

예배선언 사회자

경배와 찬양 다같이

기도 황은애 권사

성경봉독 출애굽기 3:1-12 김명숙 권사

말씀 김재형 목사

부르심

헌금 특송 홍승룡 장로

헌금 기도 이무근 장로

광고 송창호 집사

합심 기도 다같이

축도 김성국 목사

교회소식

4월 전도의 달 - 와서 도우라

환영

새로 오신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하 친교실에 새가족을 위한 지정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모두 초대합니다.

행사 및 모임

5/2(수) 모세 / 한나 선교회 헌신 예배 / 지도원 성경공부 5/6(주) 어린이 주일 / 선교회 월례회

5/9(수) 아론 / 사라 선교회 헌신 예배 5/11(금) 구역 예배 5/13(주) 아버지 주일

5/14(월) 효도 관광 5/16(수) 특별활동위원회 헌신 예배 5/20(주) 가정의달 연합 예배

알림

1. 세무봉사 수익금 \$3,910을 새성전 건축 및 선교 헌금으로 봉헌하였습니다. 참여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봉사자: 정재운, 노경희, 조정미, 배강원, 심규한, 문단, 박새롬, 설성경

2. 전도폭발 제 56기 기도후원자 모임이 5/8(화) 오후 8:15에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3. 효도 관광 안내

1) 일시: 5/14(월) 오전 9:30 교회에서 출발 2) 장소: Bethpage State Park

3) 대상: 71세 (1947년) 이상, 등록 교인에 한함 4) 문의: 박정봉 집사

4. 2018 아가페 유치원 등록 안내 (여름학교, 가을학기)

1) 대상: 2세 - Kindergarten,

2) 기간: 7/5 - 8/17(7주간),

3) 가격: \$800.00 (본교인 할인 \$50.00)

4) 문의: 아가페 유치원 사무실 (718-886-3564)

5. 5/5(토) 토요 총동원 새벽 기도회 찬양 담당: 50대 선교회 (다음주: 60대 선교회)

6. 가족기념 장학기금 김수산 장로, 김연희 권사, 설선형 교우, 설소원 교우

새가족

윤아브라함 (아론 2F2) 박영민 (아굴라 2F8) 이현옥 (청년선교 4Y2)

금식기도자

주 / 김윤정 심화숙 함용식

월 / 정길표 정민영 박대희

화 / 池美莹 黄德凤 孔宪峰 林秀娟 李倩慧 陈秀芹

수 / 唐洪梅 李倩慧 黄德凤 姜吉琼 池美莹

목 / 姜吉琼 李云 朱云 常达 张兆伟 黄德凤

금 / 池美莹 黄德凤 李倩慧 李云 朱云 权英顺 陈秀芹 张兆伟 高茜

토 / 张占斌 项漪 林秀萍 栾德银 孙优定

헌금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및 모임

주일예배	1부	오전 08:30	본당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15	
	4부	오후 02:00	
	QBC	오후 02:15	
	영어	오후 12:00	양순관
	중국어	오전 09:30 오후 02:30	
	러시아어	오전 08: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본당
수요 기도 예배	수요일	오후 8:00	
새가족 환영 모임	화요일	오후 7:30	친교실
전도폭발훈련	화요일	오후 7:30	고등부실
제자, 영성 훈련	목요일	오후 8:00	

영어부	1부 주일 오전 10:30 2부 주일 오후 12:15	영어부실(지하)
유아부		유아부실(2층)
유치부		유치부실(2층)
유년부		유년부실(4층)
초등부		초등부실(3층)
중등부	주일 오전 10:30	중등부실(4층)
	토요모임 오전 9:00	
고등부	주일 오전 10:30	고등부실(3층)
	금요모임 오후 7:00	
청년 대학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유아부실
청년 선교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중등부실

출석

1부 예배	333	러시아어 예배	28	영어부	37	중등부	57
2부 예배	380	청년 선교부	80	유아부	38	고등부	54
3부 예배	322	QBC	235	유치부	38	청년 대학부	44
4부 예배	158	새벽 예배	861	중국어 교육부	23	교회 학교 예배	447
영어 예배	162	수요 기도 예배	252	유년부	92	주일 낮 장년 예배	1771
중국어 예배	308	새가족 환영회	11	초등부	64	주일 낮 총계	2218

4월 봉사위원(5월 봉사위원)

책임 장로: 송동윤 장로(차상남 장로)

헌신기도	남형욱 장로	채영주 장로	황인섭 장로	차상남 장로
책임권사	양정자 권사 (조목환 권사)	이숙녀 권사 (김청환 권사)	송순애 권사 (이정은 권사)	청년부
실내 안내	최경선 오영자 홍지혁 강석춘	김형섭 임승룡 허영미 문인숙 이미셀	오성태 송현규 장지숙 정민영	김서희 김누리 권동은 박새롬 정형진 김선의 조한결 신예지 윤국현
헌금 위원	윤영신 심인보 조규옥 윤순자 장현미 차광혁 채송자 강석춘	이지수 허영미 문인숙 임승룡 조인범 김미권	심원희 오성태 고종빈 나인에 박석미 한원희	김누리 권동은 박새롬 정형진 신예지 조한결 윤국현 박재상 소승우
차량 안내	이영호	정사용	윤지현	최성호

화요일 새가족 환영: 마리아, 바울 주일식사: 마리아(다음주: 브리스가)

파송, 협력 선교사

파송선교사: 알마티퀸즈장로교회 김관중 선교사 / 캄보디아 이일훈 선교사 박수영 선교사

협력선교사: 미주크리스천신문 / 한인세계선교협의회 / 단비미션인터네셔널 / 여운세(캄보디아국제선교회) / 국제장애인선교회(미국) / 강인중(케냐) / 홍황식(파키스탄) / 김성일(터키) / 박선숙(미국 장애인) / 최득신(프랑스) / 김4희(미국 할렘) / 최동훈(케냐) / 이동철(온두라스) / 이갈렙(중국) / 김호동(불가리아) / 류동하(한국 경남 통영시 사랑도)

문답 39 문 :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으로부터 나는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월- 사도신경 / 찬송가 542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창세기 32:22-32

모든 것을 내려 놓고 홀로 남은 그시간,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자기 뜻대로 살려 했던 자신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한번에 관철이 어긋나 엎드러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 힘과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죄 많고 연약한 우리를 참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화- 사도신경 / 찬송가 292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창세기 33:1-11

과거, 야곱은 에서에게 아주 못된 짓을 하였습니다. 형인 에서를 질투하며 에서에게서 그의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자기의 본향으로 돌아와 다시 에서를 만나고자 할 때, 야곱은 에서에게 용서와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은혜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달라고 해야할 권리가 없었으며, 에서는 야곱을 용서하고 받아줘야할 책임이 없었지만, 에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를 받아 주었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대가를 지급하려 하는 야곱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 은혜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합심 기도/ 주기도문

수- 사도신경 / 찬송가 290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창세기 34:25-31

늘 속이고 빼앗고 싸우던 야곱이 이번에는 상대방을 용서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세겜이라는 히위 족속이며 그 땅의 추장이었던 자가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때,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가와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야곱은 잠잠 하였지만, 이번에는 그의 아들들이 자신의 전철을 밟습니다. 그들은 자기 동생에게 해를 입힌 세겜과 하몰을 속여서 그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들을 다 노략하였습니다. 상처를 입히고, 또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복수를 하고, 또 복수를 당하며 삽니다. 죄인과 죄인들이 멈추지 않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

두운 세상의 안타까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다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은혜와 용서를 받은 자임을 깨닫고, 또 은혜와 용서를 베푸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목- 사도신경/ 찬송가 302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창세기 35:1-5

자녀들의 복수로 인하여, 이제 다시 복수를 당하게 될 입장에 처하게 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엘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1절) 그리고, 야곱을 지켜 주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 지 모릅니다. 매번 넘어지는 우리에게 늘 다가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또 일으키십니다. 매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또 불러주십니다. 이렇게 평생토록,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목자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꼭 의지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금- 사도신경 / 찬송가 436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창세기 37:1-4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며 자랐던 야곱이 이삭의 전철을 밟습니다. 이삭은 첫째를 사랑했는데, 야곱은 그의 열 한 번째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들 보다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때처럼 사랑을 받지 못한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하게 되고 형제들과 요셉의 관계는 깨어지게 됩니다. 악순환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는 누가 끊으시나요? 하나님께서 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편애하지 않으시고,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요셉과 그 형제들을 통하여 보여주시려 하십니다. 참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죄인도 원수도 참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따라갑시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토- 사도신경/ 찬송가 463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창세기 37:5-11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꿈을 꾸고는 자기 형제들에게 선언하듯이 자랑하듯이 말합니다. “...청하건대 내가 곧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7절) 또 다시 그가 꿈을 꾸자 또 형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또 꿈을 꾀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9절) 요셉은 이것을 자랑하듯 말했고, 형들은 요셉을 더욱 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루실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인데, 요셉은 이 꿈을 통하여 형제들 앞에 자신을 높이려 합니다. 아주 교만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이루신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있다면 그 모든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합심 기도/ 주기도문